스마트도시 안전망 제공

군산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 시와 군·경·소방 협약

군산시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 완료에 따라 군·경·소방에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스마트도시 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해 4개의 기관(군산시, 군산경찰서, 군산소방서, 육군 군산대대)이 참여한 가운데 완료보고회 및 협약식을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에는 강임준 시장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 군산경찰서장, 군산소방서장, 육군 군산대대장 등이 참석했으며,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 및 서비스에 대해 설명했다.

시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가 주관한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 구축사업' 공모에 선정돼 국비 6억원과 시비 6억원 총 12억원을 확보했다.

사업은 지난 2020년 9월에 착수해 10개월 동안 사업추진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지난달 최종적으로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구축으로 방범·교통·재난 등 다양한 분야의 CCTV를 통합 연계해 긴급한 사건·사고 발생 시, 신고 지점 주변 CCTV 영상을 전북 경찰청 112상황실과 전북 소방본부 119상황실에 실시간으로 제공하고, 군산경찰서 순찰차 단말까지 전송함으로써 현장의 상황을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대응할 수 있게 돼 각종 재난·범죄·화재·구조 등의 업무를 체계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추가로 군산시만의 특화 서비스인 지능형 시설물, 지능형 선별관제, 안심귀가, 군부대 영상 지원 등을 추가해 통합플랫폼 기능을 확장함으로써 CCTV 관제 효율을 높이고, 시민들의 안심생활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군사 작전 수행 능력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강 시장은 "이번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기반구축사업 완료보고회와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스마트도시 안전망이 구축되어 각종 사건사고 해결을 위한 골든타임을 확보하고 여성 노인 어린이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을 지키게 될 것이라며"며, "시와 경찰·소방·군부대 등 유관 기관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시민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촘촘한 안전망을 구축해 누구나 살기 좋은 군산시를 만들어 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자고" 전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익산시, 에너지 복지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 확대

10개 읍면동 · 17개 구간 · 222세대 대상자 선정

익산시는 주민 에너지 복지 향상을 위해 도시가스 공급관 보급을 확대한다.

10일 시에 따르면, 익산시는 도시가스 공급 추진위원회를 통해 10개 읍면동, 17개 구간, 222세대를 대상자로 선정했다.

시는 시비 7억원, 전북에너지서비스 11억원, 자부담 2억원 등 총 20억원을 투입해 약 4.4㎞의 공급관을 연말까지 설치한다.

시는 지원 신청을 받아 988세대 중 222세대를 선정했다.

시는 도심위주로 보급됐던 도시가스를 면지역에 공급하기 위해 지난 2020년부터 2021년 6월까지 삼기면 일대에 4.2㎞의 도시가스 공급관을 설치했다.

도시가스 공급 보조금 지원사업은 주민 시설분담금의 80% 내에서 세대당 최대 500만원, 기초생활수급자 가구 최대 60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이 사업을 통해 2020년말 기준 2222가구에 17억3400만원을 지원, 도시가스 총 보급률을 79.7%까지 상승시켰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시민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복지 실현을 위해 매년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다"며 "농촌지역 주민들이 연료비 경감은 물론 안전하고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재훈 기자

원광대 석승한 교수,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이사장 취임

원광대학교는 석승한(산본병원 신경과) 교수가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 신임 이사장으로 취임했다.

석 교수는 이달부터 오는 2023년 7월까지 학회를 이끌게 됐다.

대한신경집중치료학회는 신경계 급성질환과 중증질환의 치료와 연구, 전문 인력 양성을 통해 우리나라의 급성 및 중증 신경계 질환 치료 분야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해 왔다.

이 학회는 신경과 전문의를 중심으로 900여명 이상의 다학제 전문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대한중환자의학회·미국 신경집중치료학회와의 교류에 나서고 있으며 한국연구재단 등재지인 영문학술지 발행 등 국내외적으로 인정받는 학회로 자리하고 있다.

석 교수는 대한치매학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대한노인신경의학회장, 차기 대한신경과학회장으로서 신경과학의 발전과 신경계 질환 환자들을 위해 활발한 진료와 연구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석 교수는 "학회의 국내외적 위상 제고를 위해 미래지향적으로 학회를 운영할 계획"이라며 "먼저 전공의를 위한 교육 확대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체계화된 프로그램을 마련해 회원들의 중환자 진료 역량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김재훈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2021년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 - 찬란한 유산, 어게인(AGAIN) 백제로'가 1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찬란한 유산 '어게인 백제로'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 온 · 오프라인 동시 진행

'2021년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 - 찬란한 유산, 어게인(AGAIN) 백제로'가 13일부터 29일까지 개최된다.

문화재청은 충남도, 전북도,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 한국문화재재단, 백제세계유산센터, 충남문화재단, 익산문화관광재단과 함께 17일간 행사를 진행한다.

문화재청이 지난해부터 추진하고 있는 세계유산축전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국내 세계유산의 가치와 의미를 내·외국인들에게 알리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올해 '세계유산축전 백제역사유적지구'는 '역동 - 부흥, 그리고 공존'을 주제로 지역을 초월한 축전의 새로운 유형을 제시할 예정이다.

특별한 배경의 공연 관람 경험을 선사하는 '다같이 백제로(路)!' 등 가치 향유 프로그램 6개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백제역사유적지구를 현실과 가상을 넘나들며 탐험하는 가치확산 프로그램 14개, 개·폐막식 등 총 22개의 프로그램을 준비했다.

백제 후기 왕도였던 공주시, 부여군, 익산시의 8개 유적과 온라인을 통해서 동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인에게 그 가치를 인정받은 자랑스러운 백제 역사 유적을 만나볼 수 있다.

13일 오후 7시20분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공주·부여·익산을 3원 중계방송으로 진행한다. 3개 지역주민이 동시에 개막을 선언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결합된 주제공연 등이 축전의 시작을 화려하게 장식한다.

모든 행사는 온라인과 현장행사로 나눠 진행하며, 코로나19 단계별 상황에 시시각각 대응할 계획이다. 13일 개막식과 29일 폐막식을 포함해 축전의 15개 프로그램은 축전 유튜브에서도 시청할 수 있다. /김재훈 기자

군산시,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종합방제 철저' 당부

군산시는 벼 출수기 전후 병해충 발생 및 확산방지를 위해 병해충 방제와 폭염 장기화에 따른 피해 예방 등 농작물 관리를 철저히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근 추이로 살펴보면 전년도 도열병이 발생한 이후, 태풍 등에 의해 널리 퍼진 병포자가 월동해 국지성 소나기로 인해 거름기 많은 논, 2모작 논 중심으로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방제에 소홀할 경우 이삭도열병으로 전이돼 쌀 수량 감소와 미질저하에 영향을 끼치므로 발생 초기에 등록 약제로 철저하게 방제해야 한다.

또한 고온 다습한 환경에서 밀식 재배할 경우 잎집무늬마름병 발생이 많아 발병 포기율이 20% 정도 발생된 논은 출수전 5~10일전로 방제해야 발생율을 경감시킬 수 있다.

중국으로부터 비래하는 혹명나방, 이화명나방 등 주요 해충방제도 필수적이다. 2화기 충으로부터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라도 피해 잎이 1~2개정도 보일 경우 등록약제로 사전 방제해야 한다.

채행석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출수전 후 병해충 종합방제를 통해 20~30%정도의 수량감소 피해를 줄일 수 있다"며 "종합방제와 더불어 폭염 장기화로 인해 논 물 걸러대기 및 물 관리에도 특히 신경을 써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군산=한경봉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 옥구농협, 코로나19 최전선 150만원 물품기탁

무더위에 코로나19 최전선에서 애쓰고 있는 직원들을 위해 아름다운 선행을 실천한 단체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군산시 보건소는 10일 말복을 맞아 방역의 최전선에서 일하고 있는 보건소 직원들을 위한 선행이 이뤄졌다고 밝혔다.

이날 보건소 직원들을 위해 군산옥구농협(조합장 전봉구)이 갈비, 포도, 식혜 등 150만원 상당의 물품을 기탁했다.

백종현 보건소장은 "말복을 맞아 여러 시민분들이 이렇게 감사함을 표시해 줘서 더욱 힘이 난다"면서 "많은 직원들이 무더위와 싸워가며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만큼 시민분들도 개인위생 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해 더 이상을 확산방지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군산=남현봉 기자

군산시 삼학동, '희망찬 마음찬 반찬배달' 실시

군산시 삼학동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동위원장 고용덕, 김문숙)가 10일부터 삼학동 관내 복지 사각지대 독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밑반찬 배달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희망찬 마음찬 반찬배달사업'은 관내 고독사 위험군인 1인 저소득 독거 중장년층 10명을 대상으로 8월부터 오는 12월까지 2주 1회씩 밑반찬과 국을 제공하고 안부를 확인하는 사업이다. 이번 사업은 소외 계층 삶에 활력 제공은 물론 사회 안전망으로써 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된다.

고용덕 민간부문 위원장은 "복지발굴 대상에서 소외되는 독거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반찬을 지원하게 되어 매우 기쁘고, 반찬을 전달받는 분들이 영양가 있는 식사를 통해 건강한 체력과 정서적 위안을 얻게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문숙 삼학동장은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촘촘한 복지안전망 구축을 통해 행복한 삼학동 만들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고병만 기자